

정의선 “현대차 체질 개선… 피지컬 SI 기업으로 진화”

자동차 기업 넘어 ‘로보틱스+AI’가 미래 경쟁력 중심 2030년까지 年 3만대 아틀라스 생산… 최고 품질 지향 “2년간美에 38조 투입… 장기 성장 핵심 기반 다질 것”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로보틱스와 인공지능(AI)을 그룹 미래 성장의 핵심축으로 강조했다.

정 회장은 12일(현지 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세마포와의 인터뷰에서 “로보틱스와 피지컬 AI는 모빌리티를 넘어서는 현대차그룹의 진화의 핵심적인 요소다”라며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새로운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특히 로보틱스와 AI가 결합된 피지컬AI를 미래 경쟁력의 중심으로 제시했다.

피지컬 AI 등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기술 역량이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판단한 정 회장은 2028년까지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공정에 투입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연간 최대 3만 대의 아틀라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그는 “고객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로보틱스와 AI는 제조 혁신과 최고 품질 제품 제공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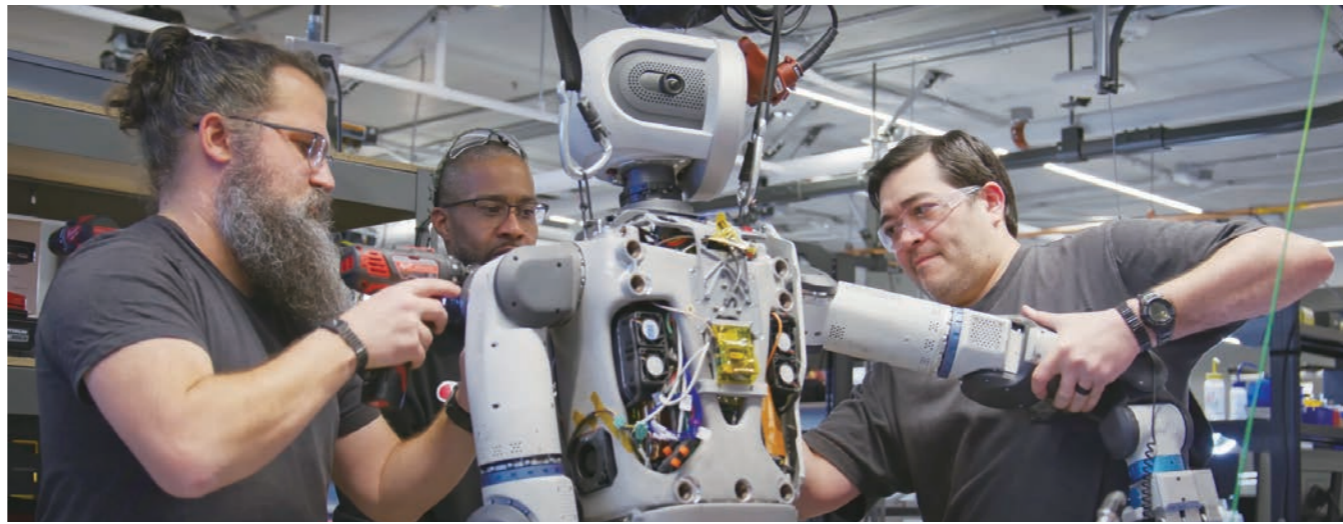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을 실제 적용과 연결함으로써 현대차그룹은 인간과 로봇, AI가 협력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며 “현대차는 수백만 대 차량에서 축적되는 실제 주행 데이터와 제조 공정 데이터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제조 데이터와 실제 이동체(차량, 로봇)는 피지컬 AI 구현에 있어 빅테크 기업들도 쉽게 확보할 수 없는 강력한 자산이라는 것이다.

또한 핵심 시장인 미국으로의 투자 확대가 그룹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정 회장은 덧붙였다.

그는 “현대차그룹에게 미국은 장기적인 회복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기반이다”라며 “2028년까지 총 260억 달러(38조 원)를 투자해 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투자로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AI 기반 소프트웨어 역량과 로보틱스 기술을 동시에



현대차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생산 현장 투입을 앞둔 휴머노이드 로봇 ‘올 뉴 아틀라스’의 AI 학습 과정 영상을 공개했다. Pick, Carry, Place, Repeat | Inside the Lab with Atlas 영상 캡처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내재화를 가속화해 미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이란 전쟁 등 심화하고 있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정 회장은 글로벌 확장과 현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고객, 규제, 공급망이 지역별로 나뉘는 등 글로벌 시장은 점점 분절화됐다”며 “유연성과 회복력을 기반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극복 방안은) 글로벌 확장과 지역별 민첩성을 결합하는 것”이라며 “각 지역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함으로써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생산기지, 미국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미국 내 하이브리드 생산 확대, 인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신규 생산 거점 등이 예시로 제안됐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 DNA에 기반해 경영과제를 극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를 통해 연간 7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200개국에 판매하고 있고 16개의 글로벌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 경쟁력의 핵심은 품질, 브랜드 신뢰, 고객 중심 사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의 환경 변화는

모두가 대응해야 할 과제이며 회복력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잘 헤쳐 나갈 준비가 됐다”며 “이는 현대차그룹의 DNA”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소 사업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 회장은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확대에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소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생산-저장-운송-활용을 아우르는 수소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생산뿐 아니라 원자재 조달과 공정,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넷제로를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훈 기자 yhleeskyedaily.com

LG엔솔, AX 전환 가속 2028년 생산성 50% 향상

김동명(사진) LG 에너지솔루션 최고 경영자(CEO)가 전사 인공지능 전환(AI)을 통해 2028년까지 전사 생산성 50%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연초 제시한 ‘2030년까지 생산성 30% 개선’ 목표를 상향 조정된 것으로, 경쟁사들이 전담 조직과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13일 전사 임직원에게 보낸 CEO 메시지에서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기술전쟁의 시대’로 묘사했다. 경쟁사들이 정책 지원과 대규모 인력을 앞세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단순한 양적 경쟁으로는 의미 있는 승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AX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AX를 통해 ‘핵심 자산 및 인재 중심’으로 경쟁의 료를 바꿔야 한다”며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특히 등 지식재산권, 30여 년의 업력, 인재를 핵심 자산으로 꼽으며 “AX와 결합해 시너지를 낸다면 경쟁의 판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X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AX는 제조업의 복잡성과 국가핵심기술 보안, 협업 체계 등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라며 강력한 리더십과 정교한 전사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매월 CEO가 주재하는 ‘AI 거버넌스 위원회’를 통해 AI 솔루션 도입과 보안, 변화관리 이슈를 점검하고 있다. 또 기업형 AI 플랫폼을 비국가 핵심기술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사 AI 교육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AI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사장은 “AI는 문제를 정의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인력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며 “구성원이 비효율적 업무에서 벗어나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김선민 기자 smkimskyedaily.com

런치플레이션에 도시락 뜬다… 반찬 HMR 키우는 식품업계

점심값 부담에 직장인 도시락 문화 확산 소포장·냉동 반찬 등 간편식 시장 세분화

점심값 부담이 커지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도시락을 직접 준비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단순한 절약 차원을 넘어 건강 관리와 식단 조절까지 고려하는 소비 흐름이 자리 잡으면서 식품업계도 반찬 중심 가정간편식(HMR)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도시락 수요 증가는 반찬 HMR 시장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식 물가 상승으로 점심 한 끼 가격이 1만 원을 웃도는 이른바 ‘런치플레이션’ 현상이 이어지자 편의점 도시락과 샐러드, 간편식 수요가 늘어난 데 이어 직접 도시락을 싸는 직장인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한 식습관과 자기관리 문화까지 맞물리면서 도시락이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도 이런 흐름이 감지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직장인 도시락 관련 게시물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고, 일주일치 식사를 미리 준비해 두는 ‘밀프렙(meal prep)’ 문화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도시락이 더 이상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콘텐츠와 취향 소비의 성격까지 띠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식품업계는 국·탕·찌개 중심이던 기존 HMR 포트폴리오를 반찬류로 넓히고 있다. 도시락용 반찬, 소포장 반찬, 냉장·냉동 저장 반찬 등으로 제품군이 세분화되면서 소비자 선택지도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동원F&B는 반찬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를 전면 개편하고 반찬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메뉴 연구 기능을 세분화하고 신규 레시피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다품종 소량 생산에 맞춘 체계 재 정비에도 나섰다.

오뚜기는 프리미엄 HMR 브랜드 ‘오즈키친’을 중심으로 반찬·간편식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오즈키친은 상온 카레와 짜

장, 죽뿐 아니라 냉장 수프와 냉동 주먹밥, 볶음밥, 치킨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하며 ‘제대로 된 한 끼’ 수요를 겨냥하고 있다.

풀무원도 ‘반듯한식’을 앞세워 반찬 HMR 라인업 강화에 나섰다. 국·탕·찌개류 중심에서 나물 반찬과 절임류, 요리 양념, 냉동 반찬까지 외연을 넓혔고, 완자와 떡갈비, 동그랑땡 등 한식 반찬 제품군도 강화하고 있다. 프리미엄 한식 간편식 브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다시 새겨보는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중동 건설시장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 건설 도전, 현대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되따라간다.

단순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의 위업을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 간부로서 직접 보고 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속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혁신과 성장을 가져왔던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조차도 극찬했다고 알려진 그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감과 용기를 심어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박정용 지음 | 348쪽 | 25,000원 | 행복에너지


다시 새겨보는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 저성장·고물가·고환율·고실업률
- 고질적 노사갈등
- 고조되는 양극화 갈등
-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노령화 사회
- 폭발적인 가계부채
- 위협받는 무역수지
- 가속되는 중국의 기술추월

과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가?



박정용 지음

그의 재능과 격려와 다짐이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울린다. 혹독한 시련에도 굴라올랐던 그의 도전정신과 위기에 맞섰던 불굴의 용기, 빛나는 발상력의 기록

Part 1 멈출 수 없는 도전

- 01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시대의 ‘이단아’
- 02 ‘바퀴 달고’ 세계를 누비는 국산 자동차의 오늘과 내일
- 03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들어 뜨거운 열사의 땅 중동 건설시장
- 04 한국인의 자력을 세계에 알린 전시장 조선소
- 05 40년 숙원 고로에 불을 당긴 현대 제철
- 06 가슴에 묻고 간 필생의 염원 통일
- 07 중국, 가깝고도 멀 수밖에 없는 나라
- 08 국제무대 등단의 무대 전경련 회장직

Part 2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놓은 다리들

- 01 경제성장을 위해 절실했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
- 02 자동차 독자개발을 놓고 벌인 미국과의 비일 담판
- 03 모두 안 된다던 조선소 발상,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
- 04 석유파동으로 빈사 상태가 된 한국경제를 구한 기상천외한 발상, 중동 건설 진출
- 05 88서울올림픽 유치기 가능하다고 믿었던 천하에 오직 한 사람

Part 3 그의 정신, 그의 기상

- 01 통일에 대한 갈망과 집념은 그에게 하나의 신앙이었다
- 02 정치해신, 더 질서는 사회... 통일을 위해 단정된 비장한 출사표
- 03 평생 노동자의 가슴을 품고 살았던 ‘성공한 노동자’
- 04 돈 액수의 자릿수보다 쓰임 가치를 쟁겼던 ‘큰손’과 ‘구두쇠’
- 05 앞서는 비결,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 06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교수 본 정주영
- 07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Part 4 인간 정주영

- 01 정주영·이병철, 갈등과 아름다운 화해
- 02 만능 엔지니어 재벌 총수의 18년
- 03 건강관리 비법과 아킬레스의 건
- 04 단순화와 직관력의 달인